

# TV

## 紅島를 立體 촬영 放映 海中公園지정운동바람직

周王山국립공원에 이어 9월 3일 밤 11시10분 KBS 1 TV 「앨범 韓國白景」은 紅島의 절경을 하나하나 공중과 지상, 해저 30m에 이르기까지 3원입체촬영으로 방영. 헬리콥터가 고공에서 잡은 운해와 홍도의 전체적인 풍광과 주변 경치를 한눈에 조감할 수 있었다. 특히 국내수중촬영사상 기록적이라 알려지는 수중 30m에 이르는 맑은 수중의 풍치는 시청자들을 황홀케 했는데 형형색색의 해조 색채무늬가 해류에 나부끼는 광경은 설악산이나 내장산의 단풍철을 연상케 하는 듯. 이 해중촬영으로 이러한 「해상국립공원」내 해중의 절경지는 해중공원으로 지정하여 오염안되게 보존 도록해야 한다는 소리를 더욱 강조 해준 셈. 아쉬웠던 것은 「국립공원 紅島」라 요약 소개 되었으나 「多島海海上國立公園紅島편」으로 정식 호칭 되었으면 싶었다. 우리나라에는 현재 閑麗해상, 多島海해상, 瑞山海岸국립공원등 3개 해상및 해안국립공원뿐이며 海中公원은 아직 지정되지 않았는데 日本은 海中국립공원이 10개소 海中國定公원이 13개소 나 된다

### 伽倻王國의 흔적 더듬어

MBC - TV 는 9월 3일 밤 7시10분 제14회 한국방송대상을 받았던 「역사다큐멘터리-가야」를 방영. 이 작품은 釜山·大邱·馬山 MBC 3개 방송사가 공동제작한것인데 역사의 흐름속에서 망각됐던 고대왕국 伽倻의 흔적을 더듬어 엮은 값진 교양물.

### 탤런트 協會長에 吳鉉京씨

방송연기자협회는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서 임시총회를 갖고 제11대 회장에 탤런트 오현경씨를 선출했다.

### 전통 색서폰 奏者 李鳳祚씨 他界

국내 최정상의 테너 색서폰주자 李鳳祚씨(56)가 8월30일 심장마비로 타계.

정통 색서폰 주자이면서 작곡에서도 명성을 떨친 그는 「밤안개」 「보고싶은 얼굴」 「맨발의 청춘」 「맨

발로 뛰어라」 「안개」 「무인도」 「총각김치」 등 많은 히트곡을 내었으며 현미·정훈희·필시스터즈등 정상급 가수들을 배출시켰다. 吉屋潤씨와 테너 색서폰에서 쌍벽을 이룬 고인은 많은 악기를 잘다룬 만능연주자였고 작곡한 작품은 1천곡정도. 서예에도 일가를 이루었으며 능률한 자태의 리더였다.

## 日 TV 촬영중 “노다지 山蔘” 발견 어린것도 마구 캐내 山蔘 멸종될듯

지난 9월 2일 강원도 양양군 서면 황이리 매봉산 정상 북쪽 70m지점(해발 1천3백50m)숲속에서 김울수씨(60)등 십마니 6명은 400년 이상된 산삼 1뿌리(30cm)를 비롯하여 크고 작은 산삼20뿌리를 캐냈는데……

이 산삼은 지난 6월29일 한국의 산삼과 십마니등에 대한 특집취재를 하러온 日本 TV 東京취재팀의 요청으로 산삼을 찾아 나섰던 김씨등이 매봉산 북쪽 기슭을 뒤희던중 발견했으나 시기적으로 약효가 적다고 그냥 두었다가 처서 후인 이날 채취한 것이라고.

그런데 이속에는 성냥개비만한 5년~50년 생의 산삼 17뿌리까지 송두리째 캐냈다고하니 이러다간 산삼이 멸종될 판이라 대책이 마련 됐으면…….

## KBS보도본부 24時 통해 說明 安元泰소장 국립공원관리공단이념들

지난 9월 7일 KBS보도본부 24시(앵커이윤성부국장)는 약 10분간 국립공원관리체제 전환에 따른 특별대담프로를 장만. 이 프로에서 대담한 골자는 이날밤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자격으로 응답한 安元泰씨(본회 자연공원연구소장)가 집필한 본지 36호 15면 「국립공원관리공단의 발족을 반기며」에 담겨있다.

## 곤충사진만 나와…

얼마전 아침 6시 45분 KBS 1TV 화면에 「농약으로 사라져가는 곤충」이란 자막이 크게 화면에 나오더니 벼메뚜기, 사마귀, 방아개비, 풀무치등 몇가지 동심으로 돌아가게 하는 곤충사진이 나타나더니 그냥 끝나버렸다.

명상과 반성을 촉구한 것인듯하나 곤충 이름이라도 말해 주었으면….

[珠]